

‘4연패·V8’ 전북 현대의 힘 <하>

## 부상자들과의 전쟁 이겨낸 ‘언성히어로’ 지원 스태프들

녹색군단의 당당한 진군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들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 무엇보다 지원 스태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시즌 초부터 부상자가 끊이지 않았다. 측면을 주름잡는 wing 포워드 한교원, 베테랑 오른쪽 풀백 이용, ‘감비아 특급’ 모 바로우까지 크고 작은 부상에 신음한 이들이 속출했다.

이 때 전북 의무진이 빛을 발했다. 2017년 3월부터 활동해온 ‘전북의 화타’ 지우반 올리베이라 트레이너(브라질)와 김재오, 김병선 트레이너는 사력을 다해 치료에 힘썼고, 적시에 회복시켜 팀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

하이라이트가 있었다. K리그1 26라운드 울산 원정(10월 25일)을 앞둔 지난달 21일, 팀 훈련 중 바로우의 무릎이 크게 돌아갔다. 처음에는 가벼울 줄 알았던 상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다. 붓기가 무릎에서 햄스트링까지 번질 만큼 심각했다.

무릎 돌아간 바로우 사흘간 치료 결승포 쓰고 선두 견인 뒤탈라지 탁월한 선수관리 이동국 통령 힘

21일부터 사흘 동안 오전부터 자정까지 매달렸다. 모두가 밤잠을 포기할 정도로 쏟은 정성이 통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첫 진단 때만 해도 1일 대구FC와 시즌 최종전(27라운드)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 부정적 분위기였으나, 바로우는 초인적 회복세를 보였다. 24일 울산 이동에 앞서는 30분간 풀트레이닝에 참가할 만큼 몸이 좋아졌다.

우여곡절 끝에 원정에 합류한 바로우가 큰일을 냈다.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8분 교체 투입된 그는 그라운드를 밟은 지 10여분 만에 결승포를 터트렸고, 지우반을 꼭 끌어안으며 감사를 전했다. ‘추격자’ 전북이 울산을 2위로 밀어내고 선두로 올랐선 순간이었다.

부상 회복이 아니더라도 전북의 선수 관리는 탁월하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시설을 갖춘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은 시즌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여름이적시장을 통해 뒤늦게 합류하고, 2주자가격리까지 마친 브라질 스트라이커 구스타보와 바로우를 예상보다 빨리 실전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의무팀의 헌신 덕분이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결정한 이동국의 통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웅의 뒤에는 ‘언성 히어로(소리 없는 영웅)’와 ‘킹 메이커’가 있는 법이다.

남정현 기자

### 축구영웅 마라도나, 뇌수술 받아 두부 외상후 피 고이는 질환…본인은 외상 기억못해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60)가 뇌수술을 받았다.

AP통신은 4일(한국시간) 마라도나의 주치의 레오폴도 루케의 말을 인용해 마라도나에게서 경막하혈종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일주일여 동안 매우 슬퍼하고 식욕도 떨어지는 등 우울증세를 보였다. 이에 주치의가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다. 입원 직후에는 탈수와 빈혈 진단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가운데 추가 검사에서 경막하혈종이 나타났다.

경막하혈종은 두부 외상 후 출혈로 인해 뇌경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뇌질환 중 하나다. 시간이 지나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자신이 언제 외상을 입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끄는 등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로 군림했다. 또 화려한 플레이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코카인 등 마약을 복용해 비난을 자초하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기도 했다. 2차례에 걸쳐 심장마비를 겪는 등 건강 역시 좋지 않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오늘 K리그 대상 시상식 | 최고의 왕별 ‘손준호 VS 주니오’

# 3년만에 우승팀 MVP냐? 5번째 외인 MVP냐?

손준호, 중원 장악력 지표 리그 1위 26골 주니오 데뷔 4년만에 득점왕 감독상, 2연패 이끈 모라이스 유력 영플레이어상 ‘송민규 VS 임원상’

올 시즌 K리그1(1부) 최고의 왕별은 누구일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하나원큐 K리그1 대상 시상식 2020’을 열고 최우수선수(MVP), 최우수감독, 영플레이어, 베스트11 수상자를 발표했다. 후보선정위원회가 올 시즌 기록 지표, 활약상 등을 평가해 4배수 후보를 추천 가운데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관심의 초점은 MVP다. 전북 현대 4연패의 주역 손준호(28)와 득점왕 주니오(34·울산 현대)의 대결로 좁혀진다. 손준호는 2017년 이재성(당시 전북) 이후 3년 만에 우승팀 MVP에 도전하고, 주니오는 통산 5번째 외인 MVP를 노린다.

수비형 미드필더 손준호는 올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중원에서 굵은일을 도맡아 사력을 다해 뛰었다. 지상볼 결합 성공(75회), 패스 차단(171회) 등 중원 장악력을 보여주는 부가지표에서 리그 1위를 차지했다. 포지션 특성상 공격포인트(2골·5도움)가 적지만, 팀 승리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하나원큐 K리그1 대상 시상식 2020’을 연다. ‘별 중의 별’ MVP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 4연패의 주역인 손준호(왼쪽 사진)와 득점왕을 차지한 울산 주니오의 2파전으로 좁혀진 순위기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위한 헌신만큼은 최고로 꼽힌다. 게다가 우승 프리미엄도 안고 있다.

주니오는 26골로 2위 일류첸코(포항·19골)와 격차를 7골로 벌리며 K리그 데뷔 4년 만에 득점왕에 올랐다. 특히 ‘경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하나원큐 K리그1 대상 시상식 2020’을 연다. ‘별 중의 별’ MVP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 4연패의 주역인 손준호(왼쪽 사진)와 득점왕을 차지한 울산 주니오의 2파전으로 좁혀진 순위기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기당 0.96골’은 역대 득점왕 중에서도 최고 기록이다. 종전 최고는 2018시즌 경남FC 말경의 0.84골이다. 다만 소속팀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은 데다, 경쟁자였던 전북과 경기에서 기대에 못 미

## 부산 강등 후폭풍…선수들 대대적 이탈 불가피

FA로 풀리는 이정협 이적 무계 이동준·김민환도 떠날 가능성 “커리어 망친다” 감독도 구인난

비기기만 해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달 31일 K리그1(1부) 최종전(27라운드) 성남FC와 원정경기에서 1-2로 역전패해 최하위(12위)로 추락했다. FC서울과 원정경기에서 승

리한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점 27로 11위가 됐고, 승점 28의 성남이 10위에 오른 반면 승점 25에 묶인 부산은 K리그2(2부) 강등의 쓴잔을 들었다.

2015년 K리그2로 내려앉은 뒤 올 시즌 힘겹게 K리그1로 돌아왔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강등의 비운을 맞았다. 지루하고 기약 없는, 또 답답한 여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딱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선수단의 대대적 이탈이 불가피하다. 당장 국가대표 출신 핵심 공격수 이정협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얻는

다. 두둑한 이적료는 꿈도 꿀 수 없다. 계약연장에 실패한 결과다. 선수 측과 성과 없는 협상을 반복하다가 ‘FA 이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됐다.

또 다른 주력 공격수 이동준도 새 도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올 여름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클럽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그다. 지금도 직·간접적 오퍼가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에게 주목 받는 차세대 오른쪽 풀백 김민환에게도 국내 빅클럽들의 입질이 계속되고 있고, 그럭저럭 제 몫을 해낸 미드필더 김진규도 잔류보다는 이적에 무게가 실린다.

외인 전용도 다르지 않다. 존재감이 거의 없는 빈치썬코의 계약해지는 당연한

수순이고,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큰 사랑을 받는 호물로도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다.

진짜 문제는 향후 행보다. 사실상 새판을 짜야 할 부산은 사령탑부터 임명해야 하는데, 지도자들에게 전혀 매력적인 행선지가 아니다. 시즌 도중 성적부진으로 사퇴한 조석재 전 감독은 합당한 K리그2 여정을 극복했음에도 올 시즌을 앞두고 1년 계약에 머물러 상당한 충격을 줬다. 많은 감독들이 “부산에선 커리어가 망가지기 십상”이라며 고개를 끄는 이유다.

뚜렷한 방향도 없고, 비전도 펼쳐내지 못한 부산에 ‘스산한 겨울바람’이 불어온 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바이에른 뮌헨 UCL 최다 ‘14연승’

32강 조별리그 잘츠부르크전 6-2 레반도프스키 멀티골 ‘통산 70골’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연승 기록을 14경기로 늘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4일(한국시간)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A조 3차전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와 원정경기에서 6-2 대승을 거뒀다. 3연승을 기록한 바이에른 뮌헨은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보태면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린 2019~2020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역대 최초로 11전승 우승을 차지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유럽클럽대항전에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회 연승 기록을 14경기로 늘리며 2시즌 연속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언제까지 연승행진을 이어갈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바이에른 뮌헨의 최전방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2·폴란드)는 잘츠부르크전에 선발로 출전해 전반 21분 페널티킥

으로 1-1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후반 43분에는 팀의 5번째 골도 책임졌다. 2골을 추가한 그는 UEFA 챔피언스리그 개인통산 70호 골을 찍었다. 앞으로 2골을 더 보태면 UEFA 챔피언스리그 통산 최다골 3위로 뛰어오른다. 1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로 130골을 넣고 있고, 2위 리오넬 메시(33·FC바르셀로나)가 117골로 추격 중이다.

B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인터밀란(이탈리아)과 홈경기에서 후반 35분 호드리구(19)의 결승골로 3-2 승리를 챙겼다. 조별리그 3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한 레알 마드리드는 1승1무1패로 조 3위로 뛰어오르며 16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C조 맨체스터시티, D조 리버풀(이상 잉글랜드)은 나란히 3연승으로 조 선두를 유지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바이에른 뮌헨이 4일(한국시간) 레드불 아레나에서 벌어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A조 3차전 잘츠부르크와 원정경기에서 6-2로 대승했다. 대회 14연승으로 신기록을 세우며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뽐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위)가 득점 후 루카스 에르난데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 AP뉴스

